

미국, 올레핀 플랜트 폭발사고

Williams에서 6월13일 오전 발생 ... 1명 숨지고 73명 부상

미국 루이지애나의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6월13일(현지시간)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 지역방송인 WAFB에 따르면, 6월13일 오전 8시30분께 석유화학기업 Williams의 Geismar 소재 올레핀(Olefin) 플랜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고 루이지애나 지방정부는 발표했다.

CNN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부상자 가운데 최소 3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보도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폭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국은 유독물질 누출을 우려해 플랜트에 있던 약 600명의 직원을 포함해 인근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주변 도로 통행을 차단했으며, 신속한 진화 작업으로 추가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역신문인 타임스피카운은 목격자들을 인용해 굉음과 함께 플랜트 상공으로 불길과 거대한 연기구름이 생겨났다고 폭발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당국은 6월13일 오후 2시께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안정됐다”고 밝혔고, 루이지애나 환경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장 내부 대기오염 조사 등 안전점검에서 단 한번도 이상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플랜트는 에틸렌(Ethylene) 59만톤 및 프로필렌(Propylene) 4만톤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화학 플랜트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은 4월17일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텍사스의 Waco 비료공장 화재 후 2개월 만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4>